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주일(성 요셉 성월)
제28권 16호 (가해) 2008.3.16

[묵상]

나의 아픔도 당신의 슬픔도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니
누구의 탓도 아님을 압니다.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니
내 몸이 곧 하늘을 담는 그릇입니다.



스스로 생각이 깊어집니다.

구상렬 하상 바오로 · 만화가

모든 결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 리 없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이렇게 모든 결과에
합당한 이유를 살피는 일은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도 없고
그만한 탓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어 두셨다.
그러니 아무 두려움도 누구를 탓함도 없이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낼지라.(人)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의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오준석 요셉, 정연숙 안나
	(생)최미예 카타리나와 앤과 티나, 박연우 크리스티나 신안젤라와 김다니엘, 민봉식 야고보, 민영준 마르코 최웅철 바오로, 이웅석 스테파노, 장현숙 발라라
주 일 낮 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준주 이옥순 마리아, 김용팔 다두, 이은완 야고보, 양우석 요셉 박동욱 요셉, 성세근 요셉, 최건 바실리오, 김기녀 마리아 김홍달 요셉, 문혁 요셉, 김태순 데레사, 김명림 삼권순 요세파나, 정연숙 안나
	(생)최미예 카타리나와 앤과 티나, 이종민 요셉, 김병숙 고현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김스텔라, 장현숙 발라라 이복임 엘리사벳, 김아가비도 가정, 문베드로와 골롬바 가정 오송이 율리아, 박진숙 엘리사벳, 반나영 세셀리아 윤의숙 엘리사벳, 정승원 셀리아와 히구찌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4-7

화답송 ①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전례성가 67 참조>

- ①사람마다 저를 보며 업신여기고, 머리를 끄덕대며
비쭈거리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렵다,
그를 사랑하시니 빼내주시렵다.②
- ①술한 개들이 저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 이 몸을
에워쌌나이다. 그들은 제손과 발을 사뭇 뚫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②
- ①저희끼리 걸음을 나눠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나이다. 주님,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구원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시옵소서.②
- ①저는 당신이름을 겨레에게 전하고,
그 모임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오리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찬양하여라.
야곱의 후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모두 다 주님을 두려워하여라.②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6-11

복음환호송 ①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①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 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②

수난복음 마태오(Matthew) 26,14-27,66<또는 27,11-54>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호산나	
봉헌	269	261,259
성체	283	284,295
파견	149	190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계속)

2) 9가지 봉사의 은사 : 1코린 12,8-10

⑨ 해석의 은사 (gifts of interpretation of tongues) : 이 은사는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심령예언', 소위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심령예언, 또는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성령의 은사로서 배운 적이 없는 생소한 언어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은혜이며,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특별한 능력이다.(1코린 12,10; 마르 16,17; 사도 2,1-13; 10,46; 19,6)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 한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해석의 은사'이다. 이 은사는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래나 말로 나타나는 심령예언이나 방언을 해석해 줌으로써 함께 한 신자들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사도 바오로는 심령예언이나 방언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있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할 것을 권한다.(1코린 14,13) 다음은 해석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들이다. - 해석을 위해서는 심령예언이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 -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동시에 방언해석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 심령예언이나 방언을 해석하기 전에 내적으로 이를 공감하는 체험이 필요하다. - 해석 및 통역은 같은 자리에서 반드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1코린 14,27) - 어떤 경우에도 해석 및 통역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베푸시는 9가지 봉사의 은사를 살펴보았다. 은사들 가운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는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다. 이에 비해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상한 언어의 은사, 해석의 은사는 이를 수행하는 데 그 능력이 외부로 드러나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회 안에 경쟁과 거짓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은사를 받은 신자들 사이에 경쟁이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은사는 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성령께 가장 귀한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청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목적이요, 뿌리이며 바탕이다. 모든 은사는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들이다. 사랑 없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며, 어떤 능력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계속 / CBCK + 박상대 신부 제공)

선택의 기로에서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영적 목상이 될 수 있는
오늘의 복음은 선택을 강요받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모아잡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
가 천지를 뒤흔듭니다. 그 시각 지도자들의 간교한 음
모가 은밀하게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너
머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배신의 불길이 강열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혹독한 고독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
과 하나 되고자 몸부림치십니다. 그 순간 달콤한 현실
적인 유혹의 강한 손길이 그분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무죄를 확신하십니다. 하지
만 현실타협이라는 알파고 비열한 욕망이 그분을
더욱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맞닥뜨리신 현실은 그 어떤 망
설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분께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립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고독한
순간을 사셔야만 했고, 비열하고 간교한 인간의 욕심
앞에서 당신 스스로 무력한 자가 되면서까지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인내하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을 십자가 위에 처형하고 승리를 노래하던 어
리석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미소 앞에서 오히려 그
들의 회개를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간절하게 기도하
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오히
려 얼마나 인간을 더 깊이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오
늘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끝맺음하기 전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렇듯 사
랑이 넘치고 자애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서 그러하
셨던 것처럼 매순간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
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이 선택의 기준점이고 출발점
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그
분처럼 행복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닮고자하면서도
인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인간적인 나약함 때
문이라고 자기변명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혹시라도 그렇
게 왜곡된 삶에 이미 길들여지거나 익숙해진 것은 아닌
지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 54)
라고 고백한 백인대장의 외침을 이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분명한 선택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선택의 기로
에서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선택이고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가 분명할 때만이 장밋빛
현실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단호한
결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병철 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귀환 펠릭스	박혜경 레나타	제1독서자 제3독서자	김교복 레오 박희자 마리아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교복 레오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서 간	이민상 요한 권순길 세실리아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제물봉헌자			토린스 서 2/3반	제물봉헌자	사목회		토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

☞ 지난 주간 합계: 2,575단 ☞ 총 합계: 266,482단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예수님께서 바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 당신의 도움 에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제 예수님 수난을 앞두고 우리는 특히 성금요일
에 단식과 금욕으로 재를 지킴으로써 주님의 죽
으심의 신비속에 더욱 참여하게 됩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3월20일 오후 8시
†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절 : 3월21일 오후 8시
† 십자가의 길(오후 3시)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3월22일 오후 9시

◆ 부활 대축일 미사(3월23일)

- 학생미사 : 오전 9시 30분 ● 교중미사 : 오전 11시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봉헌

- 희생과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3월 20일)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은총시장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 은총시장 : 3월23일(부활대축일) 오전 9시30분 미사 후
- 은총시장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받습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e, San Diego) 신청접수 중

- 주제 : "Witness"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170

◆ 백삼위 한국학교 SAT II 모의고사 실시

- 3월30일(주일) 낮12시~1시30분, 강당
- 보조교사 찾음 : 자격은 10학년~11학년 사이의 학생

◆ 부활준비 성삼일 전례 회의

- 3월19일(수) 오후8시, 성당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성가대 지휘자, 전례봉사단

◆ 고준희(제임스) 추모미사

의로운 희생으로 실종된 고준희 제임스의 추모미사를 봉헌합
니다.

- 일시 : 3월25일(화), 저녁 7시30분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성 목요일 성체 조배 시간표 (3월20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10시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토런스 서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수녀님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12시 ~ 1시	하버/카슨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새벽 5시 ~ 6시	P.V.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지혜 권순봉 금영도 김기정 김병태 김상억 김영경 김옥보 김원호 김인열 김재영 김정희 김준호 김형순 노순애 민성원 민소예 민찬기 박동화 박순자 박인식 박정자 반비오 배진영 서영주 손유경 송호창 신대철 신순철 안동훈 안민수 안재만 유영균 유철희 유희연 이귀분 이명자 이석진 이숙화 이인석 이일길 이일형 이재용 이정희 이태옥 이현주 임연조 임현기 장수창 장영우 전선미 정인식 조소용 조윤영 주태청 지경수 차봉관 최의수 한승일 김아가비도	권순봉 금영도 김기정 김병태 김옥보 김원호 김인열 김정희 김준호 김형순 민소예 민찬기 박순자 박인식 박정자 반비오 배진영 송호창 신순철 안동훈 안재만 유영균 유철희 유희연 이귀분 이명자 이숙화 이인석 이일형 이재용 이정희 이태옥 이현주 임현기 장수창 장영우 조윤영 주태청 지경수 차봉관 최의수 한승일 김아가비도
합계 : \$6,230	합계 : \$3,590
미사헌금 : \$2,951.25	

◎ 감사합니다 ◎

부활맞이 대청소에 참여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성전은 우리들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갑시다.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휴강

성주간 전례관계로 ‘거룩한 독서’를 2주간 휴강합니다.

- 수요일 : 3월19일
- 금요일 : 3월21일

◆ 은퇴계획 전략과 효율적인 기부금 증여 방법 세미나

- 3월30일(주일) 오후 1시30분, 강당
- 강사 : 월터 최 변호사(기부금, 상속계획 전문)
조장희 은퇴계획 전문가(은행권 매니저)
- 주관 : 사목회 ☎ 213-819-4242 부총무 박상진 바오로

◆ 한국어 혼인전 강좌 신청

혼배성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혼인전 강좌 (Korean Engaged Encounter Registration)가 오는 4월에 있습니다.

- 4월19일(토) 오전 8시, 성 마태오 한인성당
- 수강료 : \$50 ● 신청마감 : 4월12일(☎ 818-242-4377)
- *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16일(성지주일) : 토런스 동2반(우거지국밥 \$3)
- 3월23일(부활대축일) : 성모회 (부활축하 떡 나누기)

남가주 소식

◆ 성유 축성 미사

- 3월17일(월) 오후 7시
- LA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호회 주최 ‘뮤직 캠프’

- 성음악에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4월19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 강사 : 윤용선 바울로 신부(천주교 부산교구 성음악 감독)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참가비 : \$40(중/석식 제공)
 - 문의 : 지휘자 김경숙 클라라 ☎ 909-618-7575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유철희 바오로 320-3697 3/8(토)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선희 소피아 534-3191 3/8(토) 오후 7시, 강당
	3	한길선레 스프라스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터카 782-1025 3/14(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송죽 헬레나 213-820-4704 3/8(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권영옥 루시아 720-2876 3/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행선 율리아나 328-8351 3/5(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4	이정훈 안셀모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김병태 요셉 327-1658 3/7(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유영균 우르바노 325-8055 3/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3/7(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주님과 껍 사이 좋게 지내고 있었다. 뭘 청하기도 하고 혹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찬양하기도 하고 혹은 감사드리기도 하면서... 그러나 늘 나에게는 이런 석연찮은 느낌이 있었다. 내가 그분의 눈을 들여다보기를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나는 곧잘 말씀을 여쭙곤 하면서도 그분이 날 바라보고 계시다고 느껴지면 그만 눈길을 피해 달아났던 것이었다. 언제나 나는 그 눈길을 멀리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두려웠던 것이다. 그 눈길 속에서 뭔가 뉘우치지 아니한 죄에 대한 나무람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떤 요구가 있으리라고,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은근히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기어이 용기를 내었고 그리고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무 책망도 없었다. 아무 요구도 없었다. 그 눈은 그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나는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살피듯 바라보았다. 그래도 역시 그 눈길이 전해주는 말씀은 한 마디뿐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나와서 울었다. 베드로처럼. 아마 이것이었을 것이다.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배신을 깨닫게 한 것은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마 이것이었을 것이다.

예수의 눈길, 이는 그것 보라는 절망의 눈빛이 아니요, 그럴 수가 있느냐는 책망의 눈빛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의 눈길이며 그래도 사랑한다는 한없이 부드러운 하느님의 눈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수시로 비겁하고 약한 베드로가 되곤 하지만 또한 땅에 엎드려 슬피 울 수 있는 또 다른 베드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천년 전 골고타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앞에도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요즈음 다시 조용히 눈을 들어 봅니다. 비상시에 경계를 서는 보초와 같이 침묵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노라면 십자가의 마음이 전해 옵니다. 내가 죄를 거듭할 때마다 그러한 내 의지의 약함과 무능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십자가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때야 비로소 나는 순수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눈물처럼 뉘우침과 감사로 범벅이 된 겸손한 눈물이 내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차 올라오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 희미하게 감추어져 있던 모든 허물들도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건성으로 건네 준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무관심했던 표정과 시선들, 사랑과 정성 없이 습관적으로 해온 크고 작은 일들, 입술로만 올려졌던 기도와 찬양과 회개의 소리, 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한없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처럼 형편없는 자신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만 빠져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유다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위로와 용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기를 바라는 꼬마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베드로처럼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형제, 자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 주어라. 내가 너를 위해 했던 것처럼...”

◆수도자 묵상 글